

『더블린 사람들』: 선진유가(先秦儒家)와 함께 읽기 - 「썩패들」을 중심으로 -

김 철 수

“오, 아빠! 때리지 마세요. 그러면 성모송을 불러드릴게요.”
『더블린 사람들』, 「썩패들」

“己所不欲, 勿施於人”
자신이 원치 않는 일은 남에게도 하지 말라.
『論語集註』, 「顔淵篇」, 第 2 章

I. 들어가는 말

『더블린 사람들』(*Dubliners*)의 주제어로 인식되고 있는 세 단어인 ‘마비’(paralysis), ‘노몬’(gnomon), 그리고 ‘성직매매’(simony)에 대하여 다양한 해석이 있어왔다. 필립 헤링(Phillip Herring)은 조이스가 언어의 경제성을 성취하기 위한 작품 해석의 열쇠로서 이처럼 “정확하고, 심지어 기술적이기까지 한 용어들을 사용했다”(9-18)고 주장한다.

예컨대 「자매들」(“The Sisters”)의 플린(Flynn) 신부의 육체적 상태를 설명하는 ‘마비’라는 단어는 더블린의 전반적인 불능상태를 상징하고 ‘성직매매’라는 용어는 정치와 결탁하여 민중의 영혼구원을 등한시하는 종교적 부패를 암시하고 있다. 또한 육체적, 정신적 불완전성을 의미하는 ‘노몬’이라는 기하학적 형상은 그

모든 부정적인 상황을 도식적으로 드러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한 ‘노몬’의 형상은 신부에게 적용했을 때, 그의 정신적인 불능상태와 도덕적 전체성의 결여를 상징한다. 그리고 그것을 그 자매들에게 적용했을 때는 오라비에게 헌신하느라 자신들만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자매들의 불완전한 모습을 상징한다. 그 외에도 작품 속의 많은 다양한 등장인물들이 각자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행동이나 외모, 그리고 말투 등에서 어딘가 한 구석이 빈 것 같은 공허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노몬’이라는 도형을 닮은 더블린의 현상적 실재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필자의 견해로는 ‘마비’와 ‘노몬’ 그리고 ‘성직매매’라는 세 주제어들 중에서 ‘노몬’이라는 용어가 가장 포괄적인 함의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그 단어의 다양한 적용 가능성은 조이스가 자신이 의도한대로 아일랜드 독자들에게 스스로를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했던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사용했던 독특한 방법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그 단어들 속에 함의된 모호함에 초점을 맞추고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는 비평가들도 있다. 예컨대, 콜린 맥케이브(Colin McCabe)는 이 단어들이 “낯설음과 왓지 모를 사악함이라고 밖에는 해석될 수 없는 일련의 시니피양”(34)이라고 주장하였는가 하면, L. J. 모리시(Morrissey)는 이 단어들에 대하여 특정한 해석의 가능성을 찾기 보다는 오히려 그 단어들을 소년의 의식 속에서 평소에 낯설게 여겨지던 단어들의 표본으로 엮어져 나온 것으로 여김으로써 자의적인 해석의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고 있기도 하다(40-41).

전지적 작가의 시점과 같은 통제적 맥락이나 서술이 존재하지 않는 이런 유형의 소설 작품들은 때로 과도할 정도의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주기도 하는데, 이것은 곧 롤랑 바르트(Roland Barthes)가 이야기한 대로 “작품에 대하여 단일한 의미를 부여하기 보다는 그 작품이 갖고 있는 다양성을 감상할 수 있게 해 준다”(1974, 5)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의 작품들은 메릴린 프렌치(Marilyn French)의 주장대로, “결국 독자들을 혼동시키고, 방해하고, 의심하게 할 수도 있지만”(241) 좀 더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그러한 작품들은 단일한 메시지를 전달하기보다는, 독자들에게 숨겨져 다양한 의미를 찾아낼 수 있는 즐거움을 주기도 한다.

패트릭 패린더(Patrick Parrinder)도 『더블린 사람들』에 사용된, 작가의 개입을 철저히 배제한, 물개성적 서술방식은 하나의 가면에 불과할 뿐이며, 이 작품은 오

히려 매우 복잡한 기교를 이용해서 더블린의 삶과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대한 “대단히 양가적인 감정”(246)을 전달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양가적 감정이란 마비에 빠진 더블린에 대한 개탄과 증오의 감정 뿐 아니라 그러한 조국에 대한 안타까움, 더 나아가서 그러한 상황으로부터의 탈출에 대한 욕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더블린 사람들』을 구성하고 있는 열다섯 편의 단편 중 「짝패들」(“Counterparts”)을 재독하여 주인공인 패링턴(Farrington)의 ‘노몬’ 같은 삶의 양상을 재고해 보고, 그에 대한 표면적 서술 속에 함의되어 있는 이면적 주제를 찾아보는데 있다. 그리고 전술한 바와 같은 ‘노몬’이 제공하는 다양한 해석 가능성에 힘입어, 그 ‘노몬’의 비어있는 부분을 채우는 한 가지 방법으로 본 단편에 대한 동양철학적 해석을 시도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본 단편의 주제로 이해되고 있는 마비의 근원이라 할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의 부재와 의사소통의 단절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폭력의 문제를 선진유가의 ‘인(仁)’ 사상의 핵심요소인 ‘충서’(忠恕) 사상과 연관시켜 해석해 보고자 한다.

부연하자면, 본 논문은 언어와 문체 혹은 상징을 중심으로 한 문학 예술적 비평이나 제국주의와 탈식민주의를 염두에 둔 정치적 비평이 아니라 그동안 조이스 비평에서 “소홀히 다루어져 왔던”(박진훈 12) 등장인물들의 개인적인 내면세계나 타자와의 관계성 또는 그들의 개인적인 삶의 태도를 바탕으로 하는 연구와 그 맥을 같이 한다.

사실상 시공간적 제약을 비롯한 다양한 이유로 인하여 조이스의 작품과 선진유가(先秦儒家)의 개념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밝히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노몬’의 빈 공간이 제공하는 ‘상상력’에 의존하여 그 논지를 전개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 논지는 더블린으로 대표되는 현대사회의 만연한 개인주의와 이기주의, 소통부재와 소외의 문제, 그리고 그보다 더 깊은 곳에 뿌리박혀 있는 억압자의 폭력과 피억압자의 피해의식 등의 문제점들을 ‘개인적 성찰과 타자와의 관계 중심의 세계관’을 지향하는 동양 윤리적 관점에서 재고해 보는 것이다.

II. 표면적 서술과 이면적 주제 그리고 충서

“평행사변형에서 한 각을 포함하는 그 닳은꼴을 떼어낸 나머지 꼴”(김종건 19)을 의미하는 ‘노몬’이라는 불완전한 도형에 대한 언급과 작품 속에 등장하는 수많은 불완전한 인적, 물적 환경 등을 근거로 해링은 이 작품에 ‘부재의 수사학’(3)이 사용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필자는 더블린의 모습을 적확하게 묘사하여 읽는 이로 하여금 마치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을 보는 칼리번(Caliban)이 겪는 충격을 갖게 해 줄 목적으로 구성된 『더블린 사람들』이라는 단편집의 표면적 서술이 그려주는 ‘노몬’의 모습 보다는, 그 ‘노몬’의 잃어버린 부분이 무엇이였을까 하는 의구심으로부터 논의를 출발하고자 한다.

그리고 만일 작가가 자신이 이 작품을 통해 보여주고자 했던 ‘표면적 주제’가 ‘사랑의 부재’나 ‘의사소통의 단절’ 그리고 그로 인해 생겨나는 한 인간이나 사회, 더 나아가서 더블린 자체의 비극이었다면, 그와 정반대로 그가 말하고자 했던 ‘이면적 주제’는 그러한 비극을 애초부터 예방할 수 있게 해주는 정신 또는 그러한 비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심리적 상태의 변화를 암시하고 있을 터인데, 그 중 하나의 가능성을 선진유가의 충서사상, 즉 ‘나 자신의 삶에 충실하고, 더 나아가서 나와 남을 함께 여기는 마음’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조국의 도덕사’를 기록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더블린 사람들』의 저작에 착수했던 조이스는 그의 단편들 속에 “특별한 부패의 악취가 감도는 이야기들”(Ellmann 123)을 적나라하게 묘사해 놓았다. 이 작품 속에 등장하는 더블린은 제국주의의 폭력성과 피식민자들의 피해의식으로 점철된, 황무지와 같은 현대 사회를 상징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조이스가 기록하고자 했던 ‘조국의 도덕사’가 더블린 사람들의 삶의 현장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여 읽는 이로 하여금 자신들의 비참한 현실을 자각하게 하고자 했던 하나의 풍습사(History of Manners)라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여기에 어떤 윤리적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자칫 작품에 외연적으로나 혹은 내포적으로 담겨져 있는 여러 가지 특성들을 무시한 과도한 일반화의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없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도가 갖는 의의는 모든 면에서 “기정사실화”(Barthes 1993, 142)되어 있는 작품이나 내용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는 것이다. 웨인 부스(Wayne Booth)가 주장하듯이 작품 속에 항상 존재하는 작가의 판단은 “그것을 찾아낼 수 있는 사람에게는 항상 자명하지만, 그러한 작가의 판단과 의도가 작품 속에 드러나게 되는 방식이 좋은 것인지 아닌지 여부는 좀처럼 판단하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5).

본 논문의 이론적 배경이라 할 수 있는 ‘충서’의 개념은 인간의 사회적 관계의 근간이 되는 정신으로서, ‘혈연관계에 의한 본능적 사랑’을 의미하는 ‘효제’(孝悌)와 함께 선진유가의 인(仁) 사상의 핵심적인 요소를 이룬다(이상익 413). 원래 선진유가의 윤리사상은 인간에게 내재된 성품을 자연스럽게 예(禮)로 자리매김하고, 사사로움에 치우치지 쉬운 인간의 생리적 본능을 이성적인 도덕의 차원으로 끌어올림으로써, 인간사회의 관계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형적 쌍무윤리”로 존재했었다. 하지만 그 윤리 사상은 때로는 정치이념으로, 때로는 교육이념으로 사용되는 과정에서 그 쌍무적 성격이 제거되고 신하나, 자녀, 혹은 아우 등과 같이 상대적 약자의 역할만 강조하는 의무 개념으로 변화하기도 했다. 어쨌든, 그러한 윤리사상들의 개념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공자는 효제사상에 대하여 인을 성취하는 근본(孝悌也者, 其爲仁之本與)이라고 주장했으며(『論語集註』, 「學而篇」, 第 2 章), 공자의 사상을 계승한 맹자도 “효제는 배우지 않고도 능하며, 생각하지 않고도 알 수 있는 지극히 자연스럽게 본능적인 인간의 감정”(人之所不學而能者, 其良能也. 所不慮而知者, 其良知也. 孩提之童, 無不知愛其親者. 及其長也, 無不知敬其兄也. 親親, 仁也. 敬長, 義也. 無他, 達之天下也)이라고 표현했다(『孟子』, 盡心章句上 十五章).

이처럼 ‘효제’가 혈연을 매개로 하는 본능적인 사랑을 강조한 반면, ‘충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충실성과 진심을 그 출발점으로 하여 그 선한 영향력을 타자에 대한 사랑으로 확충시켜 나가는 것이다. 본능적 사랑과 대조되는 ‘이성적 사랑’으로서의 ‘충서’의 개념은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닌 상대의 행동여부에 따라, 혹은 개인의 지각능력과 판단능력에 바탕을 둔 사랑이다. 공자도 자신의 도가 하나의 원리로 관철되어 있다고 하였는데, 증자(曾子)는 그것을 ‘충서’라고 하였다(子曰, 參乎 吾道一以貫之 曾子曰唯 子出 問入問曰 何謂也 曾子曰 夫子之道 忠恕而已矣. 『論語集註』, 「里仁篇」, 第 15章).

‘충(忠)’이란 마음(心)의 중심(中)을 의미하고 ‘서(恕)’란 다른 사람과 그 마음(心)을 같이(如)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전자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기의 최선

을 다하는 것 또는 자기를 헌신하는 것이며, 자신이 경험한 바에 미루어 그 결과를 남에게까지 미치게 하는 것이다. 이 부분의 핵심어라 할 수 있는 “忠恕而已矣”에 대하여 주자(朱子)는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다.

자기의 마음을 다하는 것을 충이라 이르고, 자기 마음을 미루는 것을 서라 이른다. 이이의(而已矣)란 다하여서 나머지가 없다는 말이다. (盡己之謂忠, 推己之謂恕. 而已矣者, 竭盡而無餘之辭也. 『論語集註』, 「里仁篇」第 15 章).

자신의 삶을 통찰하는 일관된 원리인 ‘충서’의 의미에 대하여 공자는 자공(子貢)과의 대화에서 “내가 하고자 하지 않는 바를 남에게 하지 않는 것”(子貢問曰: 有一言而可以終身行之者乎? 子曰: 其恕乎! 己所不欲, 勿施於人. 『論語集註』, 「衛靈公篇」, 第 23 章)이라고 가르치면서, 구체적인 실례를 들어주고 있다. 이것은 곧 공자 자신이 충서의 개념을 ‘관계를 중요시하는 선진유가의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덕목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서 충서는 개인관계에서만뿐만 아니라 가정과 국가의 경영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덕목으로 인정되고 있다(仲弓問仁. 子曰: 出門如見大賓, 使民如承大祭. 己所不欲, 勿施於人. 在邦無怨, 在家無怨. 『論語集註』, 「顏淵篇」, 第 2 章).

『中庸』에서도 “충서란 도와 거리가 멀지 않으니, 자기 몸에 베풀어 보아 원하지 않는 것을 나 또한 남에게 베풀지 않는 것이다”(忠恕違道不遠, 施諸己而不願, 亦勿施於人. 『中庸』, 右第 12 章)라고 하여 충서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으며, 뒤이어 네 가지 도에 대한 실천을 이루지 못한 공자의 반성과 아쉬움을 전하며 ‘충서’의 실천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알려주고 있다.

군자의 도가 넷인데 구(丘: 孔子)는 하나도 능하지 못하였다. 자식에게 요구하는 바로써 아버지가 섬김을 다하지 못하였고, 아우에게 요구하는 바로써 형의 섬김을 다하지 못하였고, 벗에게 요구하는 바를 먼저 베풀어 주지 못하였다(君子之道四, 丘未能一焉: 所求乎子, 以事父未能也; 所求乎臣, 以事君未能也; 所求乎弟, 以事兄未能也; 所求乎朋友, 先施之未能也. 『中庸』, 右第 12 章).

요컨대, “극기복례(克己復禮)”로 요약될 수 있는 공자의 인 사상(淵問仁, 子曰 克己復禮爲仁. 一日克己復禮, 天下歸仁焉. 爲仁由己而由人 乎哉. 『論語集

註』, 「顔淵篇」, 第 1 章)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긍정하고, 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인식할 수 있는 인격적 차원의 자아의식과 주체의식을 확립하는 것을 그 출발점으로 할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그 인을 실천하는데 있어서 “자신이 하고자 하지 않는 것은 남에게도 베풀지 말고,” “자신이 서고자 함에 남도 서게 하며, 자신이 통달하고자 함에 남도 통달하게 함으로써”(己欲立而立人, 己欲達而達人. 『論語集註』, 「雍也篇」, 第 28 章) 자신의 마음에 비추어 남의 마음을 헤아리는 “추기급인”(推己及人)(윤사순 77)의 원리에 이르게 될 것을 가르치고 있다. 그러한 가르침의 기저를 이루고 있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원리가 ‘충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짜페들」을 깊이 있게 재독하게 되면, 그 작품의 표면 구조를 이루고 있는 ‘노몬’ 뒤에 그 ‘노몬’의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나 도구로서 작가인 조이스가 암시하고 있는 것이 선진유가의 충서의 개념과 그 실천에 대한 회고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III. 「짜페들」에 함의된 충서의 주제

메리 레이놀즈(Mary Reynolds)는 『더블린 사람들』이 단테의 『신곡』과 그 구조상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51). 그는 유난히 분노하는 주인공이 묘사되어 있는 「짜페들」이 분노하는 죄인들이 갇혀있는 단테의 다섯 번째 지옥과 상응한다고 여기고, 또한 자신이 주체하지 못하는 분노를 자신의 어린 아들에 대한 가혹한 매질로 분출하는 주인공 패링턴을 폭력적인 인간의 전형으로 보아, 폭력을 행사한 죄인들이 있는 일곱 번째 지옥에도 어울리는 인물이라고 주장한다(54).

필자가 본 단편 속에 ‘충서’의 주제가 숨겨져 있다고 여기는 이유는 주인공 패링턴에게 연이어 일어나는 파탄의 원인 가운데 당시 더블린 사회가 안고 있던 문제도 있었지만, “주인공의 개인적인 책임”(전은경 209)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 단편은 직장인 법률 사무소와 술집 그리고 그의 집 등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먼저 직장에서는 게으르고 갈등을 자주 느끼는 패링턴이 사장에게 꾸지람을 듣고, 반항을 하다가 사과를 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고, 둘째로 직장에서

생겨난 분노가 가져다 준 갈등을 해소하고 자신이 당한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부풀려서 자랑할 목적으로 돈을 빌려 술집에 간 패링턴이 힘겨루기에서 웨더스(Weathers)라는 나이 어린 영국 청년에게 두 번이나 짐으로써 자신이 끝까지 지키고자 하는 강한 남성의 이미지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된다. 마지막으로 집에 돌아온 패링턴은 그의 어린 아들을 지팡이로 무자비하게 때림으로써 그의 인생 전반과 자신의 평범함, 무능함, 수치스러움과 사무실에서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키고자 한다.

노리스(Senato Norris)는 이 작품 속에 비애감과 코미디가 결합되어 있다고 주장한다(60). 즉 이 단편 속에서 기계적으로 반복되는 많은 행동들이 있는데, 예컨대 시작 부분에 나오는 성난 듯 울리는 전화벨로부터 마지막에 나오는 겁먹은 어린 아이의 입에서 튀어나오는 속죄 기도인 “성모송”에 이르기까지 모든 동작들이 기계적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패링턴을 괴롭히는 앨런(Mr Alleyne) 사장의 공허한 질문 역시 패링턴의 순간적이고 자동적인 응답으로 대응되고 있다. 이러한 그의 반응에 대하여 앨런 사장도 충격을 받고 “마치 어떤 전기 기계의 손잡이가 진동하듯이”(D 91) 그의 주먹을 흔들여 댄다. 또한 이야기의 말미에서는 패링턴은 거의 기계적으로 음주의 욕구에 사로잡혀, 심지어 그의 시계를 저당잡히고 음주 원정을 출발하게 되는데, 그 술자리에서 그는 자신에게 공짜 술을 얻어먹을 요량으로 사장에게 대들었던 그의 반복되는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는 한 때의 친구들에게 환심을 사고 있다. 작품 속에 나타나는 이러한 기계적인 반복의 뒤편에 우스꽝스러운 코미디의 요소와 비애감의 요소가 교묘하게 결합되어 있다는 것이다.

패링턴은 대영제국의 식민지인 아일랜드의 한 시민으로서 빈센트 첵(Vincent Cheng)이 “개인적 혹은 문화적 분노의 전이의 형태”라고 해석한 “일련의 병리적 증상”(121)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술과 이성에 대한 판타지 그리고 극복할 수 없는 분노와 같은 것들이다. 실제로 패링턴은 자신을 좌절시키는 여러 가지의 인적, 물적 환경에 무기력하게 둘러싸여 있다.

먼저 “북아일랜드의 억양”(D 86)을 사용하는 사장은 가진 자들에게 아부하며 비굴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부하직원의 노동력을 부당하게 착취하는 가해자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는 패링턴의 근무 태도와 식사 시간까지 간섭하며 사사건건 심리적인 부담을 주고 심지어는 자신의 조카를 앉히기 위해 회사의 직원을 임의로 쫓아내기도 했다(D 93). 그는 당시 아일랜드와 영국의 합병을 지지하고 정치,

경제면에서 사회적 지배층을 차지하고 있던 북아일랜드 출신의 신교도로서(전은 경 *et al* 220), 억압자와 희생자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본 단편의 불균형적인 구조를 고착화시키는 가해자의 입장에서 서 있다.

그와 함께 패링턴을 질식하게 하는 또 하나의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율리시스』(*Ulysses*)의 「텔레마코스」(“Telemachus”) 에피소드에서 스티븐(Stephen)이 자신을 “두 주인을 섬기는 중”(U 1.638)이라고 비유했던 말 속에 암시되어 있는 바대로 로마 가톨릭이다. 그리고 이 단편에서 로마 가톨릭은 패링턴의 아내의 모습으로 상징화되어 나타난다. “몸집이 작고 날카로운 얼굴을 한”(D 97) 그녀는 패링턴이 술집에 있는 동안 성당에 가서 “의로운 분노로 무장하며”(Herring 53), 집에 돌아와서는 “남편이 술에 취하지 않았을 때는 남편을 괴롭히고 남편이 술에 취했을 때는 그에게 당하는”(D 97) 사람이다. 또한 그러한 가톨릭의 영향은 나이 어린 그의 아들에게도 아버지의 폭력 앞에 무기력하게 노출된 상태에서도 “때리지 않으면 성모송 기도를 드리겠다”(D 98)고 말하게 할 정도로 더블린 사람들의 의식 구조 속에 깊이 뿌리박혀 있다.

이처럼 패링턴은 스스로에게 내재되어 있는 강한 자존심과 폭력적 성향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성향들을 거세당한 채, 식민지 더블린에서 “하인의 하인”(U 1.312)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회적 약자이자 타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피해의식으로 인해 음주와 폭력의 악순환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패링턴 자신은 더블린의 또 하나의 마비의 현장을 체현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다른 한 편에서 보면, 작품 속에 묘사된 패링턴의 모습은 그와 같은 환경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마비의 터널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허우적대는 무기력한 인간의 모습보다는 오히려 그러한 환경과 처지를 빌미삼아 자신의 폭력성을 그저 발산하고 있는 부정적인 인물로 보여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먼저 그는 직장 상사인 앨런에게 “일은 게을리 하면서도 언제나 이 핑계 저 핑계를 내세우는”(D 87) 사람으로 비난을 받고 있으며, 제한된 점심시간도 지키지 않고 있으며, 술을 마실 생각에 자신이 해야 할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다소 무책임하고 무기력한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다.

독한 편지 술을 마시면 꼭 좋을 밤이었다. 그는 편지를 베끼려고 무진 애를 썼으나 시계가 다섯 시를 쳤을 때, 아직도 쓸 것이 14페이지나 남아있었다. 망

할 것 같으니! 시간에 맞추어 마칠 수가 없었다. 그는 육설을 퍼붓고 주먹으로 뭉든지 마구 두들겨 부수고 싶었다. 그는 너무나 화가 나서 ‘버나드 보들리’라고 써야 할 것을 ‘버나드 버나드’라고 써서 세 종이에 다시 고쳐 써야 했다. (D 90)

이처럼 부하직원을 괴롭히는 사장과, 그러한 사장의 호출에 “벌어먹을 자식”(D 86)이라고 되뇌이며 응대하는 패링턴의 모습은 작품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다가설 수 없는 평행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사장에게 당하고 나서 생긴 분노를 가라앉힐 생각으로 술집을 찾게 되는 패링턴의 행동 양상 역시 정상적이거나 떳떳하지는 못하다.

층계에서 내려서자마자 사나이는 검고 흰 바둑판 무늬가 있는 모자를 주머니에서 꺼내 머리에 쓰고 **재빨리** 흔들거리는 층계를 달려 내려갔다. 정문으로부터 모퉁이를 향해 길 안쪽으로 **살금살금** 걸어가다가 갑자기 어느 술집 문간으로 뛰어들었다. 그는 이제 오늘 주점의 **어두킴킴** 구석방에 안전하게 자리를 잡고 까만 포도주랄까, 까만 고기 빛을 띤 그의 상기된 얼굴을 술집을 들여다볼 수 있는 조그마한 창문에 들이대고 소릴 질렀다. (D 88, 필자 강조)

즉 떳떳하지 못한 행동을 하는 그의 모습을 묘사하는 데 “재빨리”라든가 “살금살금” 또는 “어두킴킴” 등과 같은 다소 부정적인 태도를 묘사하는 형용사들이 사용되어 있다. 이와 같은 그의 태도를 선진유가의 인성론(人性論)의 입장에서 바라보게 되면, 그 속에 결핍되어 있는 성품이 무엇인지를 곧 파악하게 될 것이다.

선진유가에서는 모든 인간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사람이 자신의 이기적인 주장만을 강조하거나, 또는 불리하거나 부정적인 결과에 대하여 남을 탓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을 돌아보는 반구제기(反求諸己)의 정신을 통해 무너진 관계회복의 물꼬를 자신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다.

공자는 그의 이상적 인간상인 군자(君子)를 묘사함에 있어서 “먹는데 있어서 배부르기를 바라지 않고, 거처하는 데는 편안하기를 바라지 않고, 일에 민첩하며 말에 조심스럽고, 인격을 갖춘 사람에게 나가 자신을 바로 잡는다면 가히 배움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다”(子曰：君子食無求飽，居無求安，敏於事而慎於言，就有道而正焉，可謂好學也已。『論語集註』，「學而篇」，14章)고 가르쳤으며, 맹자는 “사람을 사랑하나 친해지지 않으면 자기의 어짐을 반성하고, 사람을

다스리나 다스려지지 않으면 자신의 지혜를 반성할 것이며, 예로써 사람을 대하나 답이 없으면 자신의 공경을 반성하라”(孟子曰: 愛人不親 反其仁, 治人不治 反其智, 禮人不答 反其敬. 『孟子』, 「離婁章句上」, 4 章)고 역설한 바 있다.

회사에서 자신이 저지른 실수로 낭패를 당한 패링턴은 돈을 빌려 술집을 전전하면서 온갖 허풍으로 자신이 당한 낭패를 만회하고자 한다. 그의 의식 속에 떠도는 말들은 자신의 실수는 최대한 감춘 채 상사 앞에서 떳떳하게 자신을 표현했다는 일종의 변명일 뿐이다.

그래서 나는 그 녀석을 똑바로 쳐다보았지—냉담하게. 그리고 그 계집도.
그리고 다시 그 녀석을 쳐다보았지—천천히 말이야. ‘제게 타당한 질문이 아니군요’라고 말해주었지. (D 93)

그러나 실제 그가 그렇게 말한 상황은 이처럼 당당한 모습이 아니라,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회피하기 위해서 자신도 모르게 불쑥 내뱉고서 본인마저도 깜짝 놀랐던 어색한 표현이었던 것이다(D 91). 자신의 기분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술을 마시면서도 그는 매사가 자신의 뜻대로 돌아가지 않자 특유의 분노를 내뱉으며 대화에 집중하지 못한다(D 95). 이와 같은 격렬한 분노는 마침내 밤이 진행되고 패링턴이 점점 술을 마시게 됨에 따라 표면에 드러나게 된다. 술에 취한 그의 분노는 우선 영국인들을 향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런던 액센트”를 가진 매력적인 여인의 관심을 끄는데 실패한 그의 분노는(D 95) 자신이 돈을 내는 술자리에서 가장 비싼 술을 계속해서 주문하는 영국인 웨더스에게서 극에 달하게 된다.

공자는 “오직 어진 사람만이 남을 좋아할 수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다”(子曰 惟仁者 能好人 能惡人. 『論語』, 「里仁篇」, 3章)고 했는데, 군자로서 그가 좋아하는 사람은 “말을 어렵게 여기는 사람, 남과 사귄 때 충성을 다하는 사람, 강하고 굳세지만 질박하고 어눌한 사람, 공손하고 너그러우며 믿음직스럽고 민첩하며 은혜로운 사람”이며, 그가 미워하는 사람으로는 “남의 악을 폭로하는 사람, 아랫자리에 있으면서 윗사람을 비방하는 사람, 용감하면서 무례한 사람, 과감하면서 광박한 사람, 엿보는 것을 지혜로 여기고 불손함을 용맹으로 여기는 사람, 고자질을 정직으로 여기는 사람”등 이다(이상익 441-43 참고).

이처럼 대인관계에 있어서 나에 대한 타자의 생각보다는 타자에 대한 나의 자

세를 먼저 반성하는 동양철학, 더 엄밀한 의미로, 선진유가의 사상을 바탕으로 보면 패링턴의 태도는 자신에 대한 태도나 자신과의 관계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매우 불완전하고 부정적인 모습을 띠고 있다.

마치 화가의 표현과도 같은(Patrick 35) 패링턴에 대한 묘사는 그의 인간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그의 상황에 대한 독자의 반응을 조건 짓는다. 그는 “검은 포도주 빛의 길쭉한 얼굴에다 멧진 눈썹, 그리고 콧수염을 기르고 있으며, 두 눈이 약간 통방울 같은 데다가 흰자위는 약간 흐릿해 보이는”(D 86) 얼굴을 갖고 있다. 코델 이(Cordell D. K. Yee)는 이러한 묘사 속에서 바흐첸(Bakhtin) 식의 다성성을 읽는다. 예컨대 “길쭉한 얼굴”은 저급한 코미디의 인물을 연상하게 하지만, “검은 포도주 색의 얼굴빛”(D 86)은 포도주 빛 바다에 대한 호머식 과장과 주인공의 음주습관에 대한 정보가 병치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멧진”(fair)이라는 형용사는 로맨스의 여주인공을 연상하게 하지만, 그것은 다시 로맨스의 남주인공을 연상케 하는 “어두운”(dark)이라는 형용사의 다른 차원을 보여준다. 흰자위가 흐릿해 보이는 통방울 같은 눈은 회사 내에서 일벌과 같은 취급을 받는 그의 비참한 상황과 낯선 이성에게 눈길을 주곤 하는 그의 습관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Yee 33).

패링턴에 대한 이처럼 상세한 묘사는 고급과 저급, 고전과 낭만 그리고 깨끗함과 지저분함이 공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패링턴 자신에게 내재해 있는 긴장감과 더 나아가서 그가 속해 있는 사회의 긴장감을 또한 암시해 주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긴장감은 말로 상사를 이겼다가 다시 “푹내기”에게 팔씨름에서 지고, 아내를 괴롭혔다가 다시 아내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또 그 분풀이를 아들에게 하게 되는 과정을 통해서 그의 상황에 대한 일련의 반전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러한 반전들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하게 되는데, 바로 이런 식의 덧과 마비의 개념이 『더블린 사람들』을 구성하는 대부분의 단편들에서 발견된다.

더 나아가서, 그의 외모에 대한 이와 같은 묘사는 외형적 긴장감뿐 아니라 패링턴에게 내재해 있는 모순을 통해 그에게 일어나는 분노의 원인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사실상 그는 식민지 조국에서 제국 출신 상관의 억압 하에 생활하고 있지만, 그의 개인적인 성품이나 습관 역시 그리 바람직 한 상태는 아닌 것 같다. 그리고 현재 그가 느끼는 분노는 한 사람의 식민지 백성으로서 다양한 억압이 공존하는 열악한 환경 하에서 끓어오르는 공분이나 의분이라기보다는 개인적인 감

정을 다스리지 못해 생겨나는 심리적 상태인 것이다.

이제 이 모든 과정을 겪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전차를 기다리는 패링턴의 모습은 “아주 침울한 얼굴을 한 사나이”(D 96)로 묘사되어 있다. 아직도 그는 “속이 타는 듯한 노여움과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수치스럽고 불만스럽게 느끼고 있는”(D 96) 상태이다. 집에서 그를 기다리는 것은 꺼진 불과 아내의 부재로 텅 빈 집안, 그리고 어린 아들뿐이다.

이 모든 불만스러운 조건들에 대한 패링턴의 반응은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불행한 사건들의 원인을 식민지에서 근거한 사회악과 자신을 억압하는 상관, 그리고 자신을 무시하는 아내와 아들에게서 찾으려하며 무기력한 아들에게 매를 들어 때림으로써 분풀이를 하는 것이다. 자신의 좌절에 대한 분노를 우는 아이에게 터뜨리면서도 “자책의 눈물”(D 85)을 흘리는 「작은 구름」(“A Little Cloud”)의 꼬마 촛대(Chandler)와는 달리 패링턴에게서는 아무런 변화의 가능성도 발견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이것은 결코 나의 경험을 남에게까지 미루어 사려하는 ‘추기급인’(推己及人)의 심정도 아니고, 또 내가 싫어하는 바를 남에게도 시키지 않고 오히려 내가 하고자 하는 바를 남에게도 전해주는 ‘충서’의 기본 원리와도 거리가 멀다.

그러나 그럴수록 이와 같은 마비의 중심에서 살아가는 패링턴의 ‘노문’ 같은 삶을 숙고해 보면, 그가 품고 있는 분노에 대한 또 다른 분노보다는 오히려 그에 대한 연민이 솟아나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다. 그래서 패링턴과 같은 식민주의의 피해자이면서도 한 가정의 책임자인 가장의 위치에 있는 인물들에게 강력하게 요구되는 것이 바로 그러한 ‘노문’의 뒤편에 상실된 채 버려져 있는 충서의 개념일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기의 최선을 다하며 또한 자기를 헌신하는 ‘충’과 자신이 경험한 바에 미루어 그 결과를 남에게까지 미치게 하는 ‘서’의 복합체인 ‘충서’의 개념이야말로 좌절과 분노 그리고 폭력으로 이어지는 현대 사회의 비극적 악순환을 끊고 진정한 관계 중심의 인간 사회의 완전성을 회복하게 하는 중요한 바탕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배타적 독립성이나 개별적 정체성을 강조했던 서양의 세계관이 지닌 약점을 극복하고, 개인의 수양을 일차적인 전제로 삼고 최대한의 관계성을 존재의 본질로 규정하며, “하나의 관계망”(신영복 23-24)으로서의 세계관을 구성하는 것이 바로 선진유가의 사상을 현대에 적용시

키는 작업이 지나는 하나의 의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IV. 결론

사실 조이스는 그의 작품 속 그 어느 부분에서도 자신이 그리는 “누추한 더블린”(D 75)이 어떤 모습으로 변모해야 한다고 말한 적이 없다. 더욱이 그 어느 곳에서도 동양의 ‘인’이나 ‘효제’ 혹은 ‘충서’ 등의 사상을 언급한 적은 없다. 오히려 그는 악취로 가득 찬 더블린의 모습을 꼼꼼한 문체로 기록하여 읽는 이들에게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 대한 객관적이고 엄격한 인식을 유도하고자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작가의 서술 자세는 제국주의와 모더니티의 굴레 속에서 자신들이 처해있는 비참한 병리적 현상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기꺼이 억압받고 있는’(D 42) 더블린 사람들에겐 거울에 비친 자신들의 모습을 보고 자각의 기회를 갖게 하고자 하는 목적과, 더 나아가서 그러한 마비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 정치, 종교, 사회적 억압의 실재와 그 비도덕성을 세상에 드러내고자 하는 두 가지의 의도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서술방식은 더 나아가서 블레이크(William Blake)의 표현대로 순수의 시대를 지나 경험의 시대에 도달해 버린 현대와 현대인의 육체적, 정신적 불모성에 대한 진지하고도 치열한 사유의 자세를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되기도 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지금까지 알려진 작가의 의도에 의거한 표면적 주제, 즉 적나라한 폭로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했던 환멸스러운 더블린의 주제의 이면에 숨겨져 있을 법한 또 하나의 주제를 탐색해 보았다. 그 주제는 곧 마비를 치료하고 ‘노몬’의 결여된 부분을 보충하여 완전한 평행사변형을 만들어주며, 더 나아가서 더블린의 물리적, 정신적 불구의 근원이 되는 소외와 단절된 의사소통의 회복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정신일 터인데, 바로 그러한 주제에 대한 동양적 해석이 곧 ‘충서’라고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본 논문의 이론적 배경이 되는 ‘충서’의 개념은 그리 크고 복잡한 것은 아니다. ‘극기복례’ 즉 소아적 자아를 이겨내고 예를 통해 맺어지는 타자와의 관계 속으로 돌아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 선진유가의 ‘인’ 사상의 주요 개념 중의 하나인

‘충서’의 사상은 나와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마음의 중심을 다할 것을 가르치는 ‘충’의 개념과 더 나아가서 나의 마음과 타자의 마음을 같게 여기는 ‘서’의 개념의 복합체이다.

개인적인 성찰과 수양을 통해 타자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를 통해서 사회의 변화를 추구하는 동양철학, 그 중에서도 선진유가의 ‘충서’ 사상은 자기 몸에 베풀어 보아 원하지 않는 바는 남에게도 베풀지 말고, 반대로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대로 상대도 이를 수 있도록 도우라고 가르친다. 이것은 곧 사회적 관계 속의 개인은 개인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한 목적이 아닌, 조화로운 전체의 한 부분으로서 온전한 관계를 이루어내는 목적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리틀 챌들러나 패링턴처럼 개인적이거나 혹은 사회적 단계에서 변화를 이루어 내지 못하고 있는 더블린의 많은 성인들은 자신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제한하는 사회의 구조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타자성을 인식하고 의식적인 저항의 노력을 기울이기보다는, 오히려 피억압자 특유의 “모멸감”(D 90)으로 고통을 겪는다. 그리고 그러한 모멸감에서 촉발된 고통과 분노는 자신에 대한 억압자들이 아닌 자신들보다 더 연약한 타자들에게 향하게 된다. 즉 아내나 자녀, 그리고 종업원이나 하녀 등에 대한 폭력의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성당에 나가 남편과 가정의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하는 아내나, 매를 맞으면서도 그것을 피하거나 저항하지 않고 기도를 하겠다고 절규하는 아이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이고, 진실로 나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를 반성하고, 더 나아가서 그러한 반성을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심정으로 타자를 향해 확충하는 ‘충서’의 자세야 말로 진실로 ‘누추한 더블린’을 바라보며 답답한 분노의 심정으로 그 현장을 묘사했던 작가가 애써 드러내지 않으면서 수사적으로 표현하고자 했던 진정한 주제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

(전주대)

인용문헌

- 김시준 역해. 『中庸』. 서울: 해원출판사, 2003.
- 김종건. 『더블린 사람들, 비평문』. 서울: 범우사, 1997.
- 김충열. “‘충서’ 덕목의 비판적 이해와 선양.” 『과학사상』. 겨울호. 1997.
- 박진훈. 『조이스와 타자관계』. 서울: 한국학술정보, 2007.
- 범선균 역해. 『孟子』. 서울: 해원출판사, 1997.
- 성백호 역주. 『論語集註』. 서울: 전통문화연구회, 2003.
- 신영복. 『강의: 나의 동양고전 독법』. 서울: 들베개, 2005.
- 윤사순. 『유학의 현대적 가용성 탐구』. 서울: 나남출판, 2006.
- 이상익. 『유교전통과 자유민주주의』. 서울: 심산, 2004.
- 전은경, 홍덕선, 민태운. 『조이스 문학의 길잡이』. 서울: 동인, 2005.
- Barthes, Roland. *S/Z: An Essay*. Tr. Richard Miller. New York: Hill and Wang, 1974.
- _____. *Mythologies*. Ed. and Tr. Annette Lavers. London: Vintage, 1993.
- Bloom, Harold, ed. *James Joyce's Dubliners*. New York: Chelsea House Publishers, 1988.
- Booth, Wayne. *The Rhetoric of Fiction*.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3.
- Cheng, Vincent. *Joyce, Race, and Empir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5.
- Ellmann, Richard, ed. *Letters of James Joyce*. Vols II and III. London: Faber and Faber, 1966.
- Frawley, Oona, ed. *A New & Complex Sensation: Essays on Joyce's Dubliners*. Dublin: The Lilliput Press, 2004.
- French, Marilyn. “Joyce and Language.” *James Joyce Quarterly* 19.3 (1982): 239-55.
- Herring, Phillip F. *Joyce's Uncertainty Principl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7.
- Joyce, James. *Dubliners: Text, Criticism, and Notes*. Ed. Robert Scholes, and

- Walton A. Litz. New York: The Viking Press, 1969.
- _____. *Ulysses, the Corrected Text*. Ed. Hans Walter Gabler. London: Vintage, 1986.
- MacCabe, Colin. *James Joyce and the Revolution of the Word*. New York: Barnes and Noble, 1979.
- Morrissey, L. J. "Joyce's Revision of 'The Sisters': From Epicleti to Modern Fiction." *James Joyce Quarterly* 24.1(1986): 33-54.
- Norris, Senato David. "The Humours of Dublin—Comedy in the Stories of James Joyce." *A New & Complex Sensation: Essays on Joyce's Dubliners*. Ed. Oona Frawley. Dublin: The Lilliput Press, 2004.
- Parrinder, Patrick. "Dubliners." *James Joyce*. Ed. Harold Bloom. New York: Chelsea House Publishers, 1986. 245-74.
- Patrick, Michael. *Reading the Book of Himself: Narrative Strategies in the Works of James Joyce*. Columbus: Ohio State University Press, 1989.
- Raynolds, Mary T. "The Dantean Design of Joyce's *Dubliners*." *James Joyce's Dubliners*. Ed. Harold Bloom. New York: Chelsea House Publishers, 1988. 51-57.
- Yee, Cordell D. K. *The Word According to James Joyce*. London: Associated University Press, 1977.

Abstract

Re-reading *Dubliners* with Pre-Chin Dynasty Confucianism

– Centering on “Counterparts” –

Cheol-soo Kim

This study aims to reconsider the gnomonic life of Farrington in “Counterparts” by re-reading the short story in the light of Pre-Chin Dynasty Confucianism. This attempt is based on the diverse possibilities of interpretation provided by the theme of gnomon, an incomplete parallelogram with a small part missing.

In fact Joyce himself has never stated in any part of his works that ‘the dear dirty Dublin’ should be transformed into a specific aspect. Rather, he eagerly wishes the ‘gratefully-oppressed’ Irish to retrospect their present situation in shock, and reveal the causes of the paralysis at the root such as political, social and religious oppressions and their immorality.

However, a more careful re-reading of “Counterparts” will remind the Eastern reader of the concept of ‘Zhong-shu’(忠恕), which is a main element of ‘Ren’(仁), one of the major concepts of the Pre-Chin Dynasty philosophy. Along with the concept of ‘Xios-ti’(孝悌), which means the familial love, the concept of Zhong-shu, which emphasizes the individual faithfulness and altruistic generosity in a rough sense, functions as a complement in perfecting the concept of ‘Ren.’

In *Dubliners*, such characters as Little Chandler in “A Little Cloud” and Farrington in “Counterparts” are found frustrated in achieving any individual or social improvement. Those people tend to suffer from the sense of humiliation in the oppressive social structure, which limits their freedom, instead of recognizing their ‘otherness’ in the society and attempting to resist. And it is the concept of ‘Zhong-shu’ that they desperately need in such a situation.

Thus, with the concept of ‘Zhong-shu,’ such a helpless person as Farrington

might be able to reconsider the situations of his wife and son as well as those of himself being in others' shoes, and that might be a step forward to the moral history of Dublin in a true sense, which Joyce himself rhetorically describes in his work.

■ **Key words** : James Joyce, *Dubliners*, “Counterparts,” gnomon, Pre-Chin Dynasty Confucianism, Ren, Xios-ti, Zhong-shu, Being in other's shoes

(제임스 조이스, 『더블린 사람들』, 「짜패들」, 경절형, 선진유가, 인, 효제, 충서, 역지사지)

논문 접수: 2008년 5월 20일

논문 심사: 2008년 6월 5일

게재 확정: 2008년 6월 18일